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3월 사역 소식 (2023년)

이곳 중앙아시아 비취객에는 유난히 추웠던 긴 겨울을 지나 이제 따스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살구꽃이 만개했다가 벌써 지고 있고 사과, 체리나무들이 꽃피울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자연이 초록빛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와 사랑으로 이곳 중앙아시아에서의 사역을 통해 작지만 지속적인 꿈과 열매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역과 지역개발사역, 그리고 번역사역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느린 걸음걸이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에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1. NGO (Good Partner) 사역

● 한국어 사역 (드림 아카데미)

고려인회관에서 한국어 사역을 시작한지 올해로 13년째 들어섰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있는 현지인 교사들과 한국인 사역자들이 이곳을 거쳐가며 인원과 상황에 변화가 있지만 항상 필요한 만큼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귀한 사역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국어 사역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이곳 현지 대학의 한국어과를 지원하여 졸업을 하였고, 특별히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마친 학생들도 약 20여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대학원에 2명, 대학에 8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로 2년동안 가르치며 이곳 현지에서 한국어과를 졸업한 마들렌 선생은 현재 경희대 대학원에서 국제 한국어어 문화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1년 9월에 한국으로 나가 1년동안 강원대 언어연수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9월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대학원생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고려회관에서는 6개반이 편성되어 70명의 현지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매주 3회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어뿐 아니라 교재와 활동 시간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아 자발적으로 동아리 그룹을 만들어 노래와 춤도 배우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방학에 약 100여명이 공부하며 지내는 고아원 기숙학교(소련 시절부터 운영되어온)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준비한 한국 노래와 게임으로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개인적인 봉사활동으로 다니던 고아원 방문을 준비하다가, 이 학생들을 통해 전체 방문행사가 되어 많은 학생들과 저희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의 방문이었지만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배움을 나누며,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NGO 기관(Good Partner)을 통해 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신분으로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3가정의 한국 사역자들이 귀한 협력자로 저희 사역을 함께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비자와 노동허가가 매



년 정기적으로 잘 발행되어 이 사역에 협력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이 한국어사역과 지역사회개발 사역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비자를 잘 제공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 개발사역

이곳에 10년째 석탄을 지원하여 시골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겨울 난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원주의 밥상 공동체복지재단에서 올해에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0개 마을과 몇몇 기관들을 돕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외에도 이곳 이스쿨 지역의 소외된 마을에서 2시간 이상을 걸어서 통학하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약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웃 도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니버스를 중고로 구매하여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군과 주의 행정구역은 다른 군에 속해 있고, 학교는 이웃 도시가 가까운 상황이라 행정적인 소속 등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같은 행정구역에 속한 학교에 다닐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니는 학교는 가장 가까운 곳이 이웃 도시이고 행정 구역은 달라서 지방 자치법상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도시인 발복치 시에서도 차량을 제공할 여력은 없지만 만일 중고차량이 준비되면 운영을 위한 경비와 운전기사의 급여는 시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밥상공동체에서 이 마을을 돕기위해 이번 여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떤 형태로 돕게될지 아직 준비단계이지만 이 일을 통해 이 마을의 학생들에게 발이 되어줄 미니버스가 생겨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약 주석 번역 사역

지금까지 13권의 신약 주석서 시리즈 가운데 이번에 11번째 주석과 12번째 주석이 출간되어 이제 마지막 한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3년동안 번역팀이 함께 달려온 기나긴 시간들 속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1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초벌 번역에만 3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이후 재번역의 필요가 있는 책들에 대한 후속 조치, 거래하던 인쇄소가 문을 닫아 새로운 인쇄소로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매 권당 세밀한 감수작업과 편집작업을 10여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전체 번역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로빈교수는 나이와 건강 때문에 현재는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이곳 현지 번역팀과 감수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인 편집자와 제가 이곳 현지

에서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권이 완간되면 로빈 교수도 이곳을 방문하여 완간 기념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키르기즈어로된 주석 시리즈의 귀한 사역이 다양한 현지 사역자들과의 협력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잘 마무리 되어 현지 공동체와 지도자들에게 유익한 도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지 공동체

현지 공동체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곳 중앙아시아에 처음 도착해서 다니기 시작한 현지 공동체는 2003년에 약 20여명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작은 집을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창고형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후 성장 기간도 있었고 어려운 기간도 겪었지만, 이제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실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어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할 때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안수를 받고 건강한 사역자가 되어 전체 공동체를 책임지고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와 다양한 활동 그룹이 있고, 외국인 사역자들도 예배에 다수 참석을 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습

니다. 초창기에 설립후 지도자들을 잘 양육하고 리더십을 이양한 후 떠난 한국인 사역자는 국제M 단체의 리더가 되어 있는데, 올해 초청하여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매주 금요일에는 믿지않는 청년들을 초청하여 카페를 열어 다양한 활동과 게임,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빅팸(빅 패밀리)이라는 모임을 통해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도 하고 있는데 교회 청년들이 다양한 은사들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사택을 위해 후원하여 건축이 잘 마감되어 담임 목회자가 살고 있고, 예배당도 부족하여 새로이 지어 2개의 공간을 함께 활용하며 모임마다 청소년들이 복적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공동체가 점점 성숙해져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시골 마을 이야기

멀리 시골마을에서 영어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 아이누라는 올해도 시에서 지정한 영어문화의 달을 맞아 여러 행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생들이 수상도 했다는 소식을 나누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내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들 부부가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살피며 콩 한쪽도 나누는 돌봄의 모습에 저희도 작으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고 남겨진 5명의 자녀와 함께 빈곤에 처한 가정과 출산 후 복직이 되지 못한 동료교사가 8명의 자녀와 살아가는 가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선 급하게 식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지만 특히 다자녀 가정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중학교만 겨우 마치고 일터로 내몰려질까 염려하며 고등학교 과정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던 알콜중독자 사한은 결국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5명의 자녀들은 감사하게도 조부모님들이 돌보아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자라서 유치원에도 가고 서로 돌보고 집안일도 도울 수 있어서 할머니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가족 스캐치

큰 아이(지은)는 지난해 12월에 결혼 후, 사위가 공부하고 있는 남아공으로 들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일하던 M사역자 자녀교육개발원의 간사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 살고 있지만, 온라인이나 재택근무 형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연말에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가 사역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은이의 새로운 가정과 남아공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아이(지아)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을 잘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다문화센터나 한국어학당 등에서 교사로 일을 찾을지, 대학원에 진학할지 고민하다가 현재 저희가 있는 이곳 중앙아시아로 함께 들어와 저희의 사역에 합류했습니다. 지아는 현지어를 잘하는데다 이전에도 이곳에서 한국어 교사로 한국어 사역을 함께했던 경험이 있어서 드림 아카데미와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서 저희가 하고있는 한국어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 헌신을 통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간사 & 김간사 드림